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무주서 행복채움금융교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28일, 무주군을 방문해 과목 초등학교와 재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금융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위원장, 김승기 무주교육장 등이 참여하여 저학년은 '똑똑한 금융 이야기', 고학년은 '현명한 용돈관리'를 주제로 이론교육을 진행했으며, 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용돈 소비계획 및 용돈기입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일일 은행원 체험학습과 특별 제작된 버스형 이동점포(NH Wings)를 활용한 지폐계수기 및 위조지폐 감별기 등 실제 은행 지점에서 사용하는 기기 체험 시간도 가졌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경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나인권 도의원, 농촌산업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티벌'서 쌀 가격 정상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촌산업대상(농촌진흥청)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농업·농촌특별위원회와 채널A, 데일리한국이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회 농해수위 등이 후원했다. 국내 쌀 소비 촉진과 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김제에서 제11대와 제12대에 걸쳐 연속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신종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김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전국기독교청년회연맹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섬기고 있어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나 의원은 이번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산업대상을 수상했다. 나 의원은 "식량주권·식량안보·농업 등을 보호하는 면에서 쌀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NH농협, 무주가족센터 도서 구입비 5천만원 기탁

무주상상반디숲(형설지공도서관·무주군가족센터·생활문화센터)이 29일 개관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행장 이석용)에서 무주군가족센터에 5천만 원을 기탁해 훈장을 전하고 있다. 이석용 행장은 "무주군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다문화 가정과 독서문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모아 무주상상반디숲 개관에 맞춰 도서 구입비를 전달하게 됐다"라며 "무주상상반디숲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책들로 풍성해져서 책과 만남이 있는 소통 공간으로 사랑받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면적 4,686㎡, 지하 1층~3층 규모의 무주상상반디숲(무주읍 최북로7)은 29일 개관하며, 형설지공도서관과 무주군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지하 1층, 마추침공간, 다목적홀, 마추교실, 방음공간, 학습실)로 운영(정기 휴관 월요일)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전국요리대회서 대상 수상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지난 24~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일반부 등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는 5인 1조 라이브 요리 경연 부문에서 A팀(최지민 4년·박준규 2년·조외교 2년·김승환 1년·박서영 1년)이 대상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 또 B팀(최위성 3년·함영재 3년·김상준 3년·오윤혁 1년·이영하 1년)과 C팀(김주아 3년·임아현 2년·안채리 2년·이시원 2년·백지은 1년), D팀(장문가 3년·강찬규 3년·고준호 2년·경보규 1년·최진현 1년)도 금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요리 부문 전시 경연에서 이수민(2년)·한주희(1년) 팀과 김승욱·김민재(이하 1년) 팀도 금상을 받는 등 참가자 전원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후 지도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 외식산업에 주도해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정지은 주무관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 선정

"직원 간 화합을 넘어 조직 내 웃음바이러스가 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전북자치도정을 만들겠습니다" 5월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차지제도과 정지은(25) 주무관의 수상 소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해피 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차지제도과 정지은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5월에는 부서 내 직원 간 화합 및 팀워크에 힘쓴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해피 바이러스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달의 해피 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선정된 정지은 주무관은 부서 내에서 직원들 간 협력소 역할 뿐 아니라 업무에도 책임감 있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일괄개정을 추진했으며, 특직인 생일 챙기기 △당량 증진이 필요한 시간에 간식 제공 △부서 회의 등 자발적 행사기획 및 △응원 현수막 자체 제작으로 직원 간 화합 및 과 단합을 위한 해피 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도 주제가 플래시몹 용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팀 업무 추진에도 적극 협조해 MZ 세대에 대한 편견 타파에도 큰 역할을 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부서 내 직원간 화합을 위해 애쓰는 젊은 인재가 있어서 기쁘다"고 격려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가족복지과,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는 가족복지과(과장 서효연) 직원 14명이 28일 김산동 용곡마을에 위치한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일손돕기는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으며, 포도순 제거 및 농가 주변 환경정리 등에 직원 모두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농사철이 돌아오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가족복지과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 일손을 보태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인월면서 동아리 연계 배후 마을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가 지원하고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종선)가 주관하는 동아리 연계 배후 마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인월면에서 진행되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인월면 거점시설인 인월면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과 봉사를 통해 배후마을 및 취약계층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5일 인월면 경애원(노인요양시설)에서 진행되는 색소폰 동아리의 문화공연 봉사를 시작으로 인월면 내 배후 마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여 회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색소폰 동아리와 스포츠댄스 동아리 2개 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향후에는 주천면,



이백면, 산내면의 거점시설(중심지·기초생활거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배후마을 서비스를 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산면, 상추 시설하우스 농가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 백산면 행복복지센터는 28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추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여 명의 면 직원들은 백산면 하서리 소재 3,950㎡의 상추 하우스에서 상추 뿌리 해체 작업을 도우며 일손을 보탤다. 농가주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요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찾아와 준 직원들 덕분에 한시름 덜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미화 백산면장은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 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농촌,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송동면, 반짝반짝 실버카 이음표 부착 추진

남원시 송동면 맞춤형 복지팀은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행 보조기에 이음표를 부착하는 '반짝반짝 실버카 이음표 부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행 보조기(노인 유모차, 전동차, 휠체어, 삼각 걷기 지팡이 등)에 연락처와 이음표를 부착해 분실 또는 도난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이며, 1일 1기구 소동 행정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보행 보조기 이용 어르신 200명에 이음표를 부착하고 보행 보조기의 안전장치 점검 등을 함께 실시한다. 한 어르신은 "보행 보조기가 비슷해 경로당에서 찾기 힘들었는데 이음표 부착으로 한눈에 찾기 쉬워 유용하다"며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환 송동면장은 "앞으로도 촘촘하고 따뜻한 살림을 진행하고, 민원이 체감하는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정음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지구 청년회의소(지구회장 최부규)는 28일 정음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유농장에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부규 회장은 "전북지구 JC 회원들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며 "정음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발전을 향한 전북지구 JC 회원들의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월까지 정음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사랑'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남원시, 7~9급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운영되는 오헤브데이 호텔과 시 일일에서 7~9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운영한 6급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에 이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교육이며,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핵심 실무자로서 능동적·창의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4개 과정, 소통·협동심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일 차에는 △기획력 향상 및 보고서 작성법 △홍보기법 향상 △공공모사업 대응능력 향상 △팀빌딩 프로그램 등 공직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내용을, 2일 차에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 제5기 발대식 개최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규현, 김대식)가 최근 제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5기 협의체는 2026년 4월까지 임기가 지속되며, 당연직인 김규현 운암면장과 김대식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현정의 목소리를 반영, 복지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규현 운암면장은 "제5기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행복찬 운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